



조현택 작 '2021년 여름'



오는 10월 3일까지 동구 메이홀에서 선보이는 코로나19 사진전 '거리의 기술' 전시 전경.

### 색한지가 가을을 부르네

우제길미술관, 한지 이용 색면추상작 전시

“전통 색한지의 독특한 물성과 색감에 매료되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오방색으로 만든 한지작품을 감상하며 오복과 편안한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쳐가는 국민들을 위해 우제길 화백이 한지작품으로 따스한 위로를 전하고 있다.

우제길미술관은 오는 10월 4일까지 우 화백의 가을 정취를 담아낸 기획전을 개최한다. '색한지가 가을을 부른다'를 주제로 자연의 빛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한지를 이용한 오방색 색면추상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다양한 색감의 배치로 이루어져 있다. 판넬 위에 천연 색으로 물들어 포개어 있는 한지는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듯 하다. 인위적으로 칼, 가위 등의 도구로 반듯이 잘라낸 것이 아닌 우 화백이 물에 묻혀 잘라낸 작업으로 정갈하고 물이 흐르는 듯한 표현과 크고 작은 면들의 생생한 대비가 어우러져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연수 기자



'Light2012, A-31'

##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

### (재)숲과나눔 '거리의 기술' 순회 사진전

메이홀서 리일천·조현택·이세현 등 참여

비닐을 얼굴에 덮어 쓴 '격리인간', 코로나 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절 집회', 폐플라스틱·폐비닐·일회용품 쓰레기 속 '보이지 않는 위협'...

메이홀(May Hall)에서 만난 코로나19 사진전 '거리의 기술'은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생생한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전시 제목인 '거리의 기술'은 거리두기의 기술이자, 코로나19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기술(記述)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를 주최한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지난 4-5월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과 8월 대구 방천시장 갤러리 토

마 및 예술시장 토마에서 열렸던 전시회의 호흡에 합입어 광주에서도 이번 전시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 관련 사연들을 모아 공유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만남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전시 장소는 메이홀을 선정했다.

이번 전시가 개최되는 도시들과 전시 장소는 상징성이 클 뿐 아니라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로 전시회의 의도와도 세밀하게 상응한다.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 뒤에 숨겨진 시민들의 삶의 애환과 절절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공유하며, 기록해서 후세에 전달

하고자 하는 이번 전시의 의도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리일천, 이세현, 조현택 작가의 작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리일천은 코로나로 텅 빈 광주 도심의 적막한 풍경을, 조현택은 인적이 없어 마스크를 써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한 농촌 어르신들의 초상을 촬영했다. 이세현은 코로나로 멈춰버린 일상의 풍경을 기이하고 낯선 시각으로 포착했다.

전시와 함께 '숲과나눔 코로나19 사진 아카이빙-거리의 기술' 서적이 도서출판 풀씨에서 발간됐다. 책은 사진가 19명의 작품에 더해 장재연 이사장이 지난 1년 동안의 국내외 코로나19 통계를 분석한 논평을 담았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지원한 21개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조사 결과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미친 영향'도 실렸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2018년 7월 가정과 일터, 지역 사회가 '숲'처럼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사회의 여망을 모아 창립한 비영리 재단이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할 때마다 가장 먼저 위협받는 환경·안전·보건 분야를 더욱 견실하게 키워 나가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재연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 마스크로 가려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의 민낯을 수면위로 드러낸다"며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전 국민에게 이번 전시가 위안과 공감, 소통의 장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10월 3일까지. /이연수 기자

### 광주 예술인 하반기 생활안정자금 지원

광주시와 각 자치구 주최,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술활동의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광주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자격은 6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시 거주자로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또는 2020년 문화예술행사(사업) 취소 및 축소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 예술인 729명에게 3억6,000여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2,200명에게 총 11억 원을 지원할 예

정이다. 1차 신청 기간은 14일 오후 5시까지, 2차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종료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메일 artbodum@naver.com)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PC·모바일 사용 취약자들을 위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제출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과 함께 해당자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또는 2020년 문화예술행사(사업) 취소, 축소 확인서를 준비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강민정 작 'The will'

### 강민정·곽현석 대구작가 2인 초대전

30일까지 광주 김넷과

대구와 경북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펼쳐온 강민정, 곽현석 두 작가의 개인전이 광주 김넷과에서 열리고 있다.

민간 차원의 교류를 위해 김넷과가 추진해온 프로젝트 중 하나로 대구 청년작가 창작지원 아트페어와 모델하우스 전시회에 이어 각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강민정 작가는 계명대 서양화과와 대학

원을 졸업한 후 개인전 16회와 다수의 기획·단체전에 참가하며 멈추지 않는 창작 활동과 실험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출품된 30여점의 평면회화는 기존의 사물과 대상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표현해내는 사실적인 기법의 묘사에서 벗어나 시멘트와 플라스틱을 붙여 만드는 거친 질감과 엑스레이를 연상시키는 듯한 신체의 장기,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듯한 지면의 풍경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낸 신작들이다. 작가가 겪은 병실에서의 투병

기가 창작기의 실험이자 전환점이 됐다. 곽현석 작가의 유화 20여점은 화면 위에 집요하게 점으로 쌓아올린 지루하고도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얻어진 작품이다.

창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이어가기도 한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작가로서는 어찌 면 긴 시간과 맞설 수 있고 느리게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곽 작가는 경북대 미술과를 졸업했으며, 대구와 경북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이연수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후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장수기업

##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프**

블랙은사 바디 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런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1. 한국을 비롯한 세계 4개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총판·대리점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척문의): 070-4909-00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 총판·대리점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척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